

#대입

#수능

#데이터로 보는 입시

데이터로 보는 입시 08

높은 최초 경쟁률, 실질 경쟁률은 얼마나 낮아질까?

취재 윤소영 리포터 yoonsy@naeil.com

1104호
EDUCATION

'실질 경쟁률 · 합격선 좌우하는 수능 최저' 기사 중



표 3_ 2023학년 논술전형 최초 경쟁률 VS 실질 경쟁률

논술전형은 다른 전형보다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. 일부 대학의 논술전형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나타낸 표이다. 실질 경쟁률은 응시자 중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논술고사를 응시한 비율을 고려한 것이다.



특히 논술전형은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지만 최저 기준 충족률과 논술고사 응시율을 고려하면 경쟁률을 3분의 1로 낮아진다. 경희대 의예과의 경우 최초 경쟁률은 197.5:1이었으나 실질 경쟁률은 84.6:1이었다. 한의예과(인문) 경쟁률도 339.4:1에서 68.4:1로 낮아졌다. 중앙대 약학부는 논술전형의 최초 경쟁률이 126.8:1이었지만 실질 경쟁률은 6.8:1이었다. 중앙대 약학부는 최저 기준이 4합 5였고 탐구도 2개 과목 평균으로 높았다. 이 정도의 성적이면 중앙대 약학부보다 더 높은 대학이나 의학 계열에 정시로 합격할 수 있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실질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.

얼마 전 마감한 2024학년 수시 원서 접수 결과, 서울·수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. 두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에 비해 입시 결과가 명확히 예측되지 않고,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있으며,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돼 상향 지원 성향이 크다는 특징이 있죠. 특히 서울·수도권에서 1만974명을 모집하는 논술전형은 47만266명이 지원해 평균 42.8: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

전형이 끝난 후 대학들의 입결 발표를 보면 최초 경쟁률과 차이가 많은 실질 경쟁률을 접할 수 있습니다. 최초 지원자 중에서 허수를 제외하고 실제 합격 조건을 갖춘 지원자만의 경쟁률이란 의미인데, 이때 허수란 면접이나 논술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뜻합니다. 경쟁률 감소 비율은 수능 결과에 따라 달라지죠.

더 친절하게 서강대처럼 추가 합격한 총원 인원을 더해서 실질 경쟁률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(표 1). 총원 인원만큼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돼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집니다. 높은 최초 경쟁률이 걱정된다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실질 경쟁률을 확인해 보세요. 요,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? @

표 1_ 2023학년 서강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 입시결과

모집단위	모집 인원	지원 인원	최초 경쟁률	논술 응시+최저 기준 충족 인원	최종 합격 인원	최종 경쟁률	총원율(%)
경영학과	36	2,900	80.56:1	844	43	19.63:1	14.3
컴퓨터공학과	12	1,770	147.50:1	608	12	50.67:1	0
기계공학과	10	893	89.30:1	256	20	12.80:1	100.0

최종 경쟁률은 논술 응시 + 최저 기준 충족 + 총원 인원을 반영함



(내일교육) 기사에는 데이터를 포함한 표가 많습니다. 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, '데이터로 보는 입시'는 지난 기사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코너입니다.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편집부에 알려주세요. 한걸음 더 들어가 해설로 찾아하겠습니다. 편집자